

윤리, 준법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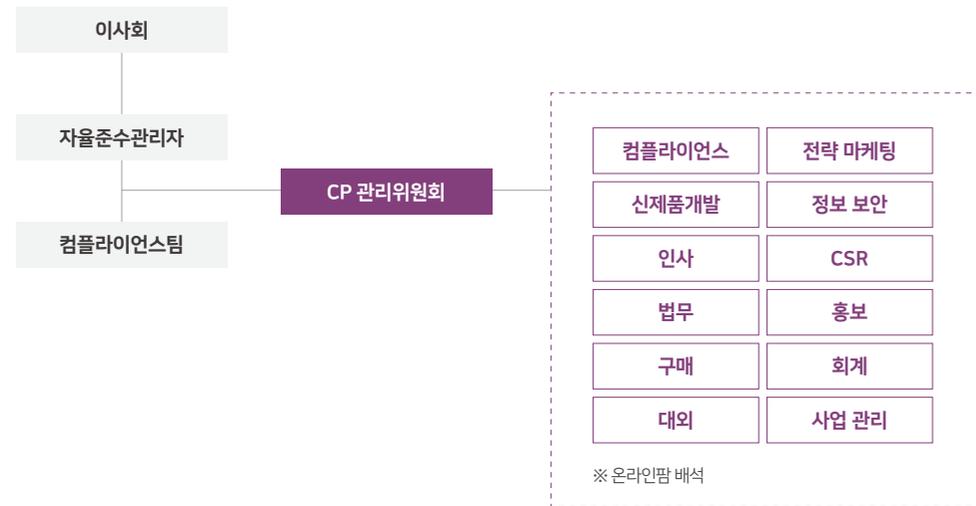
한미약품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이를 위한 적극적 참여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최고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하고 모범적인 글로벌 한미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강화

홈페이지 윤리경영 ▶

한미약품은 최고경영자가 매년 대내외적으로 자율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신년사, 자율준수의 날, 윤리경영 소식지, 간담회 등), 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엄격한 준수를 경영 정책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CP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은 자율준수편람(공정거래 관련 법규, 사내 CP 규정 등)을 제작 배포하여 임직원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여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위원장으로, CP 전담부서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CP 관리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소지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논의 및 개선 조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영 손실을 방지합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참여와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자 인센티브, 위반자 제재, CP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 운영조직



한미약품 CP등급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컴플라이언스팀)는 윤리규범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의 기본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임직원들이 이를 일상 업무에 적용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운영 사업자에게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실한 CP 운영을 유도합니다. CP등급평가제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합니다. 한미약품은 2013년 처음으로 CP등급평가에 참여한 이후, 2020년, 2022년, 2023년에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고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유일하게 5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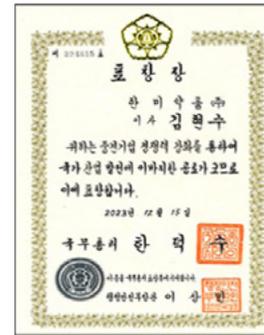


년도	등급	적용기간
2013	BBB	2014.1.1~2014.12.31
2014	A	2015.1.1~2015.12.31
2015, 17, 19	AA	2016.1.1~2020.12.31
2020, 22, 23	AAA	2021.1.1~2025.12.31



한미약품 윤리 준법경영 수상내역

한미약품은 공정거래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의 모범 기업이자 CP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기관으로부터 여러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제보하기 채널'의 상시 운영, 대내외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차단 및 개선 노력, 연 2회 진행되는 오프라인 협력업체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 강화, 협력사 CP 교육 등의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년도	수상 이력	년도	수상 이력
2016	대통령 표창	2020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17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2021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보건복지부 표창
2018	보건복지부 표창	2019	식약처장 표창
2019	식약처장 표창	2023	국무총리 표창



OUR COMPANY	+
SPECIAL TOPIC	+
ESG MANAGEMENT	+
ENVIRONMENT	+
SOCIAL	+
GOVERNANCE	-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 윤리, 준법경영	
ESG FACT BOOK	+
APPENDIX	+
ESG POLICIES	+

최고 수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한미약품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규정)'이 요구하는 8가지 CP 도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매년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 적극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 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 실시 필요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사 및 감사 시스템 구축 · 운용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 마련 · 운용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가능성 예방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그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컴플라이언스 교육

한미약품은 CP 교육의 체계화와 계층별 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업본부(영업/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업무, 계층, 지역, 연차별로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인재위원회 임원(대표이사, 주요 부서 임원)과 CP관리위원회 위원(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장)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최신 동향, CP 모니터링 결과 및 사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사 제재자, 정기교육 미이수자, CP Test 저점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CP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및 자회사, 협력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CP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P 전담부서(컴플라이언스팀)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로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교육명	구분	교육횟수	누적 교육인원
	국내사업부 정기교육	11	7,224
	국내사업부 관리자 교육	6	354
	관계회사(자회사) 교육	5	426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CP와 CP등급평가 이해 - 지출보고서 제도 - 공정경쟁규약 -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	신입사원 교육	9	298
	CP 역량강화교육	4	135
	CP관리위원회 교육	6	109
	인재위원회 교육	12	109
	마케팅 교육	7	192
	지역 방문 / 연차별 교육	21	364
2. 제약산업 불공정행위 - 제약산업 주요 이슈 & 동향	협력업체 교육	2	104
	법무교육	1	2,340
3. CP주요 위반사례			
4. 업무관련 부패방지활동			
5.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6. 내부 제보			
	ISO 37001 관련 교육	1	79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3	75
	법무교육	1	2,340
전체 누적		88	11,809

부서별 리스크평가 관리

한미약품은 2017년 제약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ISO 37001)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사후심사와 3년 단위 갱신심사를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 받고 있습니다.

ISO 37001 시스템 도입의 효과로,

- 첫째,** 조직이 강력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부패방지 문화의 확산으로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 셋째,** 뇌물, 향응, 접대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부패 유혹, 요구, 강요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 다섯째,** 글로벌 기준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신뢰성이 증대됩니다.
- 여섯째,** 검증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시스템의 객관적 검증 및 미비점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미약품은 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위해 부서별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에 대한 조치 방안을 수립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업무 단위별 잠재적인 리스크를 평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리스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HLC(Hanmi's fraud tree - Law - Code) 매트릭스를 제작하여 배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패방지 사전 조치	부패리스크 평가 사업장	전체 사업장 - 본사, 팔탄사업장, 평택사업장, R&D센터				
	리스크 평가 실시 비율	100%				

ISO 37001의 인증 Process



ISO 37001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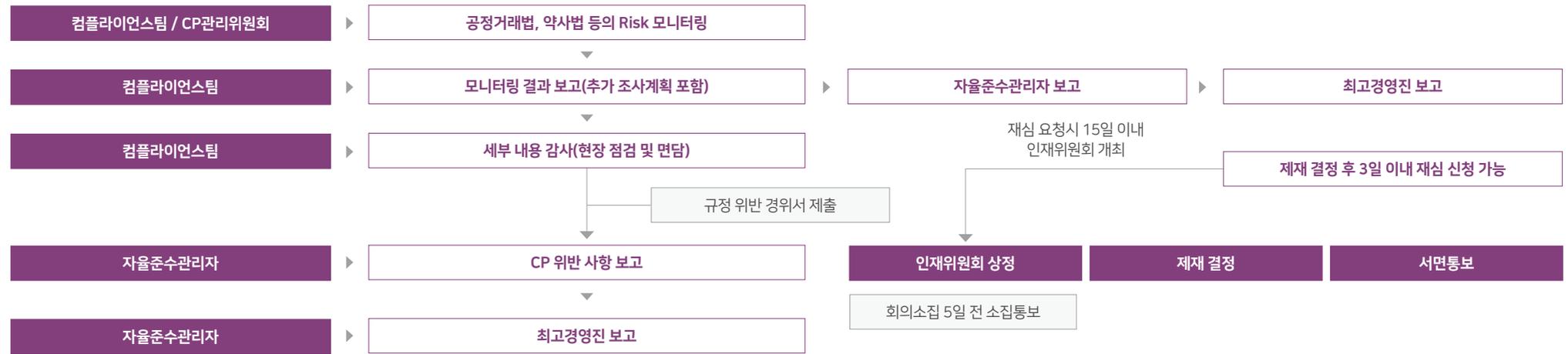
1장(적용범위), 2장(인용표준), 3장(용어와 정의), 4장(조직상황), 5장(리더십), 6장(계획), 7장(지원), 8장(운용), 9장(성과평가), 10장(개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한미약품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제재 및 포상 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내 CP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자율준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위반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약품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임직원 제재 절차는 인재위원회의 제재 프로세스를 따르며, 모든 제재 사항은 문서화됩니다. 경미한 위반 사실이 발견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 및 예방 조치(예: 교육)를 실행합니다. 또한, 사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사항을 공개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순한 내부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재 기준을 마련, 제재 조치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월별 모니터링, 특별 감사, 내부 제보 등 다양한 모니터링 경로를 통해 위반 사례를 식별하고 적절한 인사 제재를 진행한 후, 교육을 통해 각 부서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재위원회 제재 프로세스



임직원 제재 및 인센티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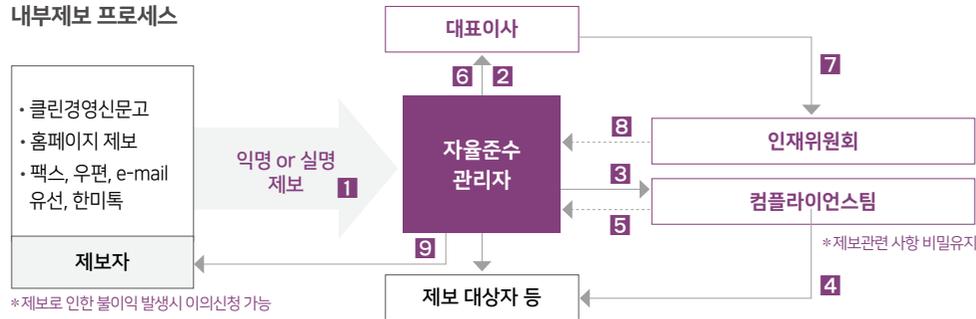
구분	리스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사제재	사내 규정위반 제재조치 인원수	15명	69명	16명	15명	2명
인센티브	인원	최우수 4명, 우수 16명	최우수 4명, 우수 16명	최우수 4명, 우수 16명	최우수 4명, 우수 16명, Event 30명	최우수 4명, 우수 14명, Event 50명
	우수조직	12개팀	12개팀	12개팀	12개팀	12개지역

- OUR COMPANY +
- SPECIAL TOPIC +
- ESG MANAGEMENT +
- ENVIRONMENT +
- SOCIAL +
- GOVERNANCE -
- 지배구조
- 리스크 관리
- ▶ 윤리, 준법경영
- ESG FACT BOOK +
- APPENDIX +
- ESG POLICIES +

대내외 위반 행위 제보 및 처리

한미약품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약사법, 하도급법, 공정경쟁규약, 사내 CP운영 규정 등의 위반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과 지침(내부신고제도 규정, 컴플라이언스 내부신고 운영지침, 금품향응 수수 자진신고 운영 지침)을 운영합니다. 사내 인트라넷(CES)의 클린경영신문고, 홈페이지, 윤리경영소식지를 통한 QR코드 제보하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 제한 없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수는 익명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된 제보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됩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한미약품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내부제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팀 내 한정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제보 프로세스



No	진행과정	비고	No	진행과정	비고
1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제보 접수	*제보자 정보는 자율준수 관리자만 보유 (제보자 본인 선택)	5	조사결과 보고	
2	대표이사에게 보고		6	대표이사에게 보고	
3	컴플라이언스팀에 조사 지시	* 조사인의 신원보장(익명성) → 외압·부정청탁 예방	7	인재위원회 상정	
4	감사 실시 (제보 대상자 등)		8	제재 결정	
			9	제재 조치서 발송 및 결과 통보	* 보상은 실명제보자에 한함

한미약품 내부제보 채널

구분	클린경영신문고 (CES 인트라넷)	사내메신저 한미톡	클린경영소식지 윤리경영소식지	홈페이지 제보	우편/FAX /E-mail	유선, 무선
내부/외부	내부	내부	내·외부	외부	외부	
대상	임직원					
상시접근성	· 상시 접근 가능 (모바일, PC, 유무선 통화, 우편/FAX/E-Mail 모두 가능)					
익명성	· 익명성 조치 모두 완료					
고발 요건	· 고발 요건 제한 없음					
기타사항	· 클린경영소식지(임직원 대상) 내부제보 홍보 및 QR스캔으로 내부시스템 접근 (접근성 강화) · 윤리경영소식지(사업관계자 대상) 내부제보 홍보 및 QR스캔으로 내부시스템 접근 (접근성 강화) · 공정거래 관련 행위 자진신고 가능 (금품 및 향응 수수 자진 신고 시스템)					

금품 및 향응 수수 자진 신고

한미약품은 업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받은 금품, 선물, 향응, 접대 등(이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이는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관련 청탁을 없애며, 한미약품의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제공사(협력업체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도 분명히 전달하는 조치입니다. 자진 신고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사내 인트라넷(CES 내 사이버 CP Zone)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자진신고하기'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품 등 수수자는 받은 금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금품 향응 수수 자진신고 지침' 절차를 따름), 이후 자율준수관리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사에게 금품 등의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 자진신고 프로세스



No	진행과정	비고
1	선물 및 뇌물 자진 신고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2	반환 가능여부 확인 (제공사에게 반환 또는 기부/기증)	기부 및 기증 불가능 시 폐기
3	처리결과 보고	

한미약품 내부제보 채널

구분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제보	건	6	4	7	2	0
인사제재 등 조치	건	6	4	7	2	0
제재 인원	명	5	2	3	2	0